

제16
도시건강관련 건강검진 이용자의 특성조사
 도시지역 주민의 예방적 건강행태 조사

초록 번호 IV-2-4

제 목	국 문	농촌지역 주민의 예방적 건강행태 조사		
	영 문	Preventive Health Behavior of Some Rural Inhabitants		
저 자	국 문	김창엽, 김용익, 신영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영 문	Chang Yup Kim, Yong-Ik Kim, Youngsoo Shin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분 야	건강관련 행태 II	발 표 자	김 창 엽 (일반회원)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0) → 완료 예정 시기 : 1993 년 12 월			
<p>1. 연구목적</p> <p>건강행태는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질병을 예방하고 찾아내기 위한 행위를 가 리키는 것으로, 생활양식과 더불어 주민의 질병 발생이나 건강수준과 밀접한 관련 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의료보험의 실시 이후 치료 서비 스에 대한 접근도가 향상되고 경제적 장애가 낮아짐에 따라, 점차 예방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의료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예방적 건강행태는 명확한 효 능이 검증되지 않은 채 국민들 사이에서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막대한 비용이 지 출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예방적 건강행태에 대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조사 등을 통하여 정 기적으로 현황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행태의 내용과 비용 등에 대해 서는 여전히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부 농촌지역을 대상 으로 하여 몇 가지 예방적 건강행태의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심으로 현 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p> <p>2. 연구방법</p> <p>본 조사는 인구 61,305명(1990년)인 경기도의 1개군을 대상으로 하여, 1993년 7 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조사대상 지역의 자연부락 중 생산수단(농촌형, 도시형)과 중심지역에서의 거리(근거리, 원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20개 지역을 층화집락추출하고, 집락 내의 전 가구를 혼련된 면접원(39명)이 방문 조사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대상은 1,256가구, 4,577명이었다. 조사대상 항목은 예방 적 건강행태와 관련된 것으로 건강보조제 복용, 예방접종, 건강검진을 선정하였고, 건강보조제에 대해서는 가구별,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가구원별로 1년간 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였다.</p> <p>3. 연구결과</p> <p>1) 건강보조제</p> <p>총 조사가구 중 건강보조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모두 535가구로서 전 체 조사대상 가구의 42.6%였고, 그 중 64가구는 2종, 14가구는 3종, 4가구는 4종의 건강보조제를 복용하였다. 파악 가능한 <u>건강보조제의 종류는 영양제군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약 100건, 개소주 및 흑염소 64건, 인삼과 영지 등의 생약류 58건 등의 순서였다.</u></p> <p>건강보조제 구입에 사용한 비용은 비용조사가 가능했던 517가구에서 가구당 평 균 245,000원을 지출하여 총계 126,700,000원이 지출되었다. 이를 1990년 현재의 조 사대상 군의 전체 가구수(15,167 가구)로 환산하면 약 15억 8,298만원 정도로 추정 된다.</p>				

① 사회심리적으로인 추가

2) 예방접종

총 조사대상 가구원 중 1년간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모두 1,170명으로 25.6%를 차지하였다. 가구 단위로는 전체 가구의 48.6%인 611가구가 1건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았다. 한편 총 접종 횟수는 1,615건으로 조사대상 주민 1인당 0.35회의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의 종류는 뇌염이 5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행성출혈열 334건, 간염 281건, 렙토스피라증 100건 등의 순서였다. 예방접종 장소는 학교를 제외할 경우 보건지소가 5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군 보건의료원(168건), 민간 의원(35건) 등의 순서였다. 비용은 조사가 가능한 가구원 1,109명이 합계 5,948,832원을 지출하여 1인당 평균 5,364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군 인구로 환산하면 약8,418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3) 건강검진

총 조사대상 가구원 중 1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모두 381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였다. 가구단위로는 모두 301가구가 1명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 전체 가구의 24.0%가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의 종류별 분포는 병의원에서의 검진이 19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장건강검진(121명), 의료보험건강검진(50명) 등의 순서를 보였다. 건강검진 장소는 군 보건의료원이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타시군의 병의원이 148명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파악이 가능했던 356명이 지출한 비용은 모두 8,813,446원으로 1인당 평균 24,757원이었다. 이를 전체 군 인구로 환산하면 약1억 2,597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4. 고찰

가구단위로 볼 때 예방접종을 받은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건강보조제이다. 건강검진은 전체 가구의 24.0%에 불과하여 다른 건강행태에 비하여 이용도가 낮았다. 다른 건강행태에 비하여 특히 건강보조제의 복용이 매우 흔하였다. 건강보조제의 복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조사(1992년)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나 여러 건강행태 중에 그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도 국민건강조사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조제의 비중이 큰 것은 비용 지출의 측면에서 보면 더욱 뚜렷하다. 세가지 종류의 예방적 건강행태에 조사대상 지역 주민이 지출한 비용 중 파악 가능한 비용은 약 1억 4,146만원인데, 이 중 영양제등 건강보조제의 구입에 지출하는 비용이 전체의 8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적어도 비용의 측면에서는 농촌주민들의 예방적 건강행태가 건강보조제에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세가지 종류의 예방적 건강행태에 지출되는 비용의 크기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1990년 현재 조사대상 군의 공공보건의료 예산과 의료보험 예산의 합이 약40억 3,897만원 정도인 바(신영수 등, 1993), 이들 예방적 건강행태에 지출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계보건의료비가 약17억 9,313만원에 이르러 공공 및 준공공보건재정의 약44%에 이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비합리적인 건강행태가 지나치게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즉, 가장 많은 비용이 명확한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는 건강보조제 구입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방접종이나 합리적으로 선정된 항목의 건강검진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효과가 크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건강행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것은 현재의 건강행태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건강행태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서의 진전된 분석과 함께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